



개성에 첫 남북합영회사 준공

기사입력 2006-09-26 12:00 최종수정 2006-09-26 12:00



[뉴스현장]

- 앵커 : 북한 개성에 남과 북이 절반씩 투자해 설립한 남북 합영회사로는 처음으로 아리랑태림 석재공장이 준공해서 개성시 덕암리에서 석재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

태림산업은 지난해 9월 북측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295만달러를 투자해 부지 1만 5000평에 건평 1000평의 공장을 건설했고 내년부터 건설용과 장식용 석재 800만여 톤을

(황헌 앵커 freewind@mbc.co.kr)

[저작권자(c) MBC (www.imnews.com) 무단복제-재배포 금지]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214&aid=0000018737>